

북, 어제 '에이테킴스' 시험발사..."동해상 섬목표 타격"

SBS유영규 기자

입력 : 2022.01.18 07:40 | 수정 : 2022.01.18 07:40



북한이 어제(17일)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'북한판 에이테킴스'(KN-24)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조선중앙통신은 오늘 "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"며 "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"고 밝혔습니다.

통신은 "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"면서 "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,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

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술유도탄은 KN-24인 것으로 보입니다.

생산품 중 무작위로 골라 실사격을 통해 품질 검사를 했다는 의미로, 북한이 KN-24를 실전 배치했고 향후 생산 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

북한의 KN-24 발사는 지난 2019년 8월 두 차례 시험발사와 2020년 3월 시험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

북한판 에이테킴스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TEL에서 발사되며,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이번처럼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(400km 안팎)이며 정점 고도가 사드(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) 최저 요격고도(50km)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.

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, 고도는 약 42km입니다.

북한이 어제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'알섬'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

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알섬까지는 직선거리로 370~400km 정도입니다.

북한은 지난 2019년 8월에도 KN-24가 알섬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.

또 지난 14일 당시와 같은 표적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미사일로 명중시키는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을 볼 때, 북한이 장소와 방식을 달리해 기습적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북한은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'북한판 이스칸데르'(KN-23)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.

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.

이는 새해 들어 네 번째 발사입니다.

북한은 지난 14일에도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'북한판 이스칸데르'(KN-23)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, 앞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'극초음속 미사일'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

SBS유영규 기자

입력 : 2022.01.18 07:40 | 수정 : 2022.01.18 07:40

© SBS & SBS Digital News Lab all rights reserved.